

의협 사상 첫 감사 불신임



대한의사협회 사상 첫 감사 불신임 사태가 일어났다. 의협 김세헌 감사는 9월 3일 의협에서 열린 ‘2016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불신임 발의안 투표결과 167명 중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불신임됐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이동욱 대의원은 95명의 대의원 동의를 받아 의협 대의원회에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 발의 서명지를 제출하며 “의협 정관규정 20조의 2 1항 2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3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의 사유로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신임 발의안 제출 이유는 ▲회원들 7063명이 불신임요청 한 추무진 집행부 회무 및 회계에 대한 부실 줄속 편향 감사를 했고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 및 대외적 협회 명예를 훼손했고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현향 감사를 했다는 3가지를 들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

치과의사전문회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회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의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이어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는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하며 미수련자의 경우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수련교육 담당 대상에 있어서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하되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및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중앙대병원 최첨단 쇄석기 도입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최첨단 4세대 체외충격파 쇄석기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

요로결석 치료 장비인 ‘신형 4세대 체외충격

파 쇄석기(GE OEC Fluorostar 7900)'는 기존 쇄석기에 비해 상당 부분 성능을 개선시킨 최신 모델로 안전성과 무통시술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안정적이고 강한 충격파를 전달해 결석 분쇄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충격파에 비해 환자의 체표면적에 닿는 부위를 분산해 통증을 줄이고 충격 전달 깊이의 증가로 치료 깊이가 깊어져 고도 비만 환자에서도 치료가 용이하다.

신종 유산균으로 아토피 치료한다

치료에 난항을 겪었던 아토피 피부염을 신종 유산균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대(총장 김창수) 의과대학은 김원용 교수팀이 지난



2008년 발견해 중앙대 명칭을 활용해 명명한 신종 유산균 'Lactococcus chungangensis(락토코커스 중앙젠시스)'가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증상을 감안한 치료제가 이미 개발돼 있으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장기 복용할 경우 부작용 또는 내성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

교수팀은 아토피 피부염의 세포 매개성 면역 기능 장애와 면역 기전의 관계에 주목해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은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염증 또는 알레르기와 관계된 사이토카인(Cytokine) 및 케모카인(chemokine)의 생

성과 염증 주요 인자인 산화질소(Nitric oxide) 및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E2의 분비 및 알레르기 주요 인자인 베타-헥소스 아미니다아제(β -hexosaminidase) 및 히스타민(Histamine)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됐다.

아토피 유발 동물모델에 적용했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보다 더 좋은 수준의 효과가 확인됐다.

김원용 교수는 “‘락토코커스 중앙젠시스’를 이용해 제조한 요거트와 치즈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에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국내외 특허 출원 중이며 'Journal of Dairy Science' 9월호에 게재됐다.

당뇨·비만치료제 시장 2022년 2배 확대

글로벌 당뇨·비만치료제 시장이 오는 2022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2형 당뇨병과 비만 발생률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들의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미국 시장조사업체 GBI 리서치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글로벌 당뇨 및 비만치료제 시장(Global Diabetes and Obesity Drugs Market to 2022)'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08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당뇨·비만치료제 시장이 향후 연평균 12.7% 증가, 오는 2022년에는 1632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 글로벌 제품은 최근 승인됐거나 개발과정 중

인 존슨앤존슨(J&J)의 인보카나(Invokana), 노보노디스크의 트레시바(Tresiba)와 NN-9535가 끝났다.

특히 제1·2형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치료제로 모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보카나는 2022년 연매출 3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SGLT-2 억제제 계열을 리더하고 있는 인보카나는 지난해 매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MSD의 DPP-4 억제제 계열인 자누비아(Januvia), 노보노디스크의 노보로그(Nobolog)도 글로벌 당뇨·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Fosyga), 온글라이자(Onglyza), 사노피의 릭시탄(LixiLan) 등은 2022년 매출액 톱10에 진입할 가능성도 짚었다.

릭시탄은 란투스와 GLP-1인 릭수미아(Lyxumia)의 복합 주사제이다.

1인 1개소법, 의료인 평등권 침해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가 '1인 1개소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법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할 수 없다'(의료법 33조 8항)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심리중인데 빠르면 10월중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 등을 비롯한 병원계는 '1인 1개소법'이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지나친 기본권 제한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졸속으로 처리된 입법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관련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정영호 회장은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료법인은 극단적인 영리성을 띤 네트워크 병의원과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타인 명의대여로 위장 개설해 영리성을 추구하는 불법의료기관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1인1개소법으로 인해 회원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큰 만큼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의료법 33조8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의료법인들도 불법을 차단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의료법 개정이 오히려 의료인의 평등권 침해 및 규제 등 실익이 없는 법으로 마땅히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제약바이오협회'로 명칭 변경



한국 제약협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국제약협회는 8월 23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KMA) 명

칭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약협회는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발해 1953년 대한약품공업협회를 거쳐 1988년 한국제약협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번이 4번째 명칭변경이다.

이재국 상무(사진)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개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10월 1일부터 모든 임신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험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된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약 33%으로 낮춘것.

이번 수가 개편(개편 총규모 4220억)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3308억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 1차년도 시행 종료료가 2017년 1월인 점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유방암 기존보다 3배 빠르게 진단



유방암을 기존 방식보다 3배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의료기기 업체에 기술이전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을 수행한 서강대 유양모 연구팀이 치밀형 유방 환자의 유방암을 현재 방식보다 3배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3차원 초음파영상기술을 개발, 메디칼파크(대표 박희봉)에게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기존 X-선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의 장점을 융합해 환자가 앉아있는 상태로 유방을 고정된 후에 복수의 넓은 초음파 프로브가 고정판과 함께 이동하며 유방을 스캔을 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업타이트(Upright)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 영상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고해상도 유방초음파 신호 및 영상처리 기술, 자동 영상 최적화 기술, 유방 종괴 자동 검출 및 분류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유방암 영상진단장치 시장에서 새로운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 영상장치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유방암 진단 장치의 글로벌 시장은 2016년 27.5억 달러에서 2021년 41.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5% 성장 이 예상된다. /MP저널